[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쉼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김현태 기자

교계 입력 2021.10.16 16:05 수정 2021.10.16 16:18 호수 1606 댓글 0

흩뿌리는 빗속에 시작된 순례…불자들 응원받으며 정진
불은에 화답하고자 떠나온 길 느릴지언정 멈출 순 없어

"순례의 일심발원이 전법중흥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사르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가 스승이기를 발원하오니 널리 섭수하시어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10월16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새벽은 흩뿌리는 빗속에서 시작됐다. 쉼 없이 내리는 빗줄기는 금세 순례단을 적시었고, 곳곳에 물웅덩이를 만들어 순례단의 발길을 더디게 했다. 그러나 삼보를 예경하며 불은에 화답하는 여정을 발원하며 떠나온 길이기에 느릴지언정 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었다.

이주민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판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회의 소집…'정청래 의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한국어 자신있어요"…국제포교사회, 외국인근…
감각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인연
선학원미래포럼, "성범죄자 이사장 선출은 불…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억새의 무설법…

연재

자현 스님의 유튜브 입성기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18. 기러기 - 상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2. 지혜 ⑥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새벽은 흩뿌리는 빗속에서 시작됐다.

전날 숙영지에서 16일차 순례의 목적지인 표충사까지는 24km. 순례단은 경찰과 안전요원들의 보호 속에 어두운 빗길을 행선해 2시간여 만에 동국대 부속 홍제중학교에 도착했다. 전날 밀양에 도착하며 이어진 불자들의 환영과 응원은 이날도 계속됐다. 가장 먼저 홍제중에는 김웅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순례단을 박수로 맞이했다.

김웅 교장은 “당초 1km 전 노천에서 아침공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남 유일의 종립학교인 홍제사로 모시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방문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 홍제중이 더욱 발전하고 학생 부족 등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법보신문 전법원력, 어려운 …

많이 본 뉴스
01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02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갚아야죠”
03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04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05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06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07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08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09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10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아침공양과 휴식을 마친 순례단이 동국대 부속 홍제중학교를 떠나고 있다.

단장면사무소 앞에는 신명사 신도 옥연화 불자가 새벽 6시부터 보이차를 준비해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옥연화 불자는 “힘든 순례길에 비까지 내려 따뜻한 차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순례단이 언제 지나갈지 알 수가 없어 무작정 새벽부터 기다렸다”며 “스님과 불자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이른 아침 차를 공양하는 옥연화 불자에게 합장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표충사로 향하는 재악산 초입에 들어서자 태국,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스님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들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내세요” 구호를 외치며 박수와 환호로 순례단을 응원했다.

단장면사무소 앞에는 신명사 신도 옥연화 불자가 새벽 6시부터 보이차를 준비해 순례단을 기다렸다.

표충사로 향하는 재악산 초입에 들어서자 태국,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스님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들이 순례단을 응원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구미 마하붓다사 지도법사 산트시리 스님은 “순례에 참여 중인 진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의 많은 스님들이 이주민을 지원하고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들과 순례 중인 스님들을 응원하러 왔다”며 “우리들의 응원으로 조금 더 힘을 내 모두가 통도사에서 웃으며 회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느린 발걸음을 쉼 없이 움직여 오전 10시 사명대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에 도착했다. 표충사는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말사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표충사당이 있다. 원래 이곳에는 원효 스님이 창건한 죽림사가 있었으나, 신라 흥덕왕 때 황면선사가 재건하며 영정사로 바꿨다. 표충사라는 이름은 사명대사를 제향하는 사당을 영정사로 옮겨오면서 표충사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사찰에서 사당을 수호해 사(祠)가 사(寺)로 바뀐 것이다.

순례단은 서산, 사명, 기허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당을 찾아 차를 올리고, 대광전 앞마당에서 16일 순례의 회향을 부처님께 고했다. 이 자리에는 호계원장 보광, 통도사 주지 현문, 전 주지 원산 스님 등이 함께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송광사를 출발해 큰 재를 넘고 강을 건너 비가 오는 가운데 이곳 표충사에 도착했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사부대중의 응원이 있었기에 무탈하게 해제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사부대중의 원만회향을 위해 저와 표충사가 응원하고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7일 해발 989m의 사자평을 넘어 불보종찰 통도사를 지척에 둔 울산으로 향한다.

표충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서산, 사명, 기허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당을 찾아 차를 올렸다.

한편 표충사는 이날 오후 표충사당 앞 특설무대에서 전통 호국음악 공연을 개최했다. 무대에는 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의정부시립무용단 '호국의 빛', 이이화 '호국찬불가 보렴', 행황협주곡 '비천의 향', 홍승희 '날좀보소, 날좀보소' 등 국악과 사물, 춤, 창작무용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밀양=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6호 / 2021년 10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땐 오관게·축원으로 마무리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억새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P